



광주시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 침체에 빠져 있는 광주 공동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을 전개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예술의 거리 '예술 옷' 입힌다

광주시, 8억원 들여 활성화 사업 전당과 연계 대표 문화공간으로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는 현재 명맥만 유지한 채 애타게 전락했다. 평일 애도 거리를 찾는 사람은 드물고 일요일에는 아예 갤러리, 상가 등도 철시해 '문화도시'를 기대하고 온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장소가 된 지 오래다.

광주시는 올초부터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 지구인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예향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시는 전문가 토론회, 예술의 거리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TF팀을 구성해 프로그램 구성·토론 과정을 거쳐 3일 기본안을 발표했다. 사업은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실행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추진위 등을 구성, 진행하게 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공예난장 등 다채로운 사업은 예술의 거리를 재발견하고, 활력 있는 거리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민·예술가·기획자가 함께 예술의 거리 문화지도를 제작하고 예술가들의 참여와 상징적 공간들에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거리에 새롭게 옷을 입히는 공공미술·디자인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거리에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 거리를 새롭게 변모시킨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도 운영한다. 예술의 거리 내 빈 상가 등을 임대, 미술·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에게 제공하며 창작 지원금도 제공한다.

상인들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기존 공방들과 연계한 아이টে일 공예 제품 개발·전시·판매·체험 공간이 어우러진 '공예난장'을 운영하고 해설이 있는 갤러리 투어 및 미술품 경매, 문화예술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기존의 개미시장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술의 거리 공연장 등을 활용해 팝·클래식·연극·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

기는 '문화·예술 마니아의 세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밖에 상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랑방 공동체'를 구성하고 열린포럼, 문화공론의 장 등을 마련하며 시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상가 주민들 자발적 참여 필요

시는 이번 사업을 우선 1년 예정으로 진행,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술의 거리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사랑방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업종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상인들에게서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예술의 거리 대표 흥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머피나리에는 관리 기관인 광주시 동구청이 "주민이 원한다면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네 손이 빛나는 꿈의 앙상블

광주 첫 피아노 듀오 'Ah&Rang' 8일 공연

광주에 처음 피아노 듀오 앙상블이 탄생했다.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에서 듀오 연주회를 연 적은 많지만 정식으로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앙상블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학교 교수)씨와 이랑(광주대 겸임교수)씨다. 두사람은 'Ah&Rang'을 창단하고 첫번째 공연을 갖는다. 8일 오후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한대의 피아노에서 함께 연주(연타)를 하거나,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피아노 듀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이화여대 음악학과 선취배 사이인 두 사람은 10여년 동안 광주대에 몸담으며 함께 연주를 해온 터라 서로의 연주 스타일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쉽게의 기우합했다.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블랑의 '네

손을 위한 소나타', 리벨의 '네손을 위한 연타곡 아미 거위', 리벨의 '스페인 광시곡',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 등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곡들로 꾸렸다.

두 사람은 당초 연타곡과 두 대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준비하려 했으나 공연장에 피아노가 한대 밖에 없어 이번 연주회는 연타곡으로만 꾸렸다.

두 사람은 적어도 1년에 한차례씩 정기연주회를 열 계획이며 독일 공연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첼로, 바이올린 등 다른 악기와 어우러진 무대도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김정아씨는 "같이 연주하면서 즐거웠고 많은 공부도 봤다"며 "피아노의 다양한 연주 형태를 보여주고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 듀오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랑

김정아

김상훈 아쟁 독주회 ▶ 오늘 빛고를 국악전수관

가야금 등 다른 악기에 비해 아쟁 독주회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귀한 무대다.

빛고를 국악전수관이 4일 오후 7시 아쟁 연주자 김상훈(사진·서울시국악관련학단 아쟁 수석)씨를 초청 연주회를 갖는다.

연주곡목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박대성류 아쟁산조', 민속합주 '대풍류', 짧은 소리로 일변한(국립창극단원)과 꾸미는 '육자배기', '태평소와 아쟁 시나위' 등이

이번 공연에는 스승 이태백(목원대) 교수와 함께 국악의 길을 걷고 있는 동생 형석(광주시립국악관련학단원·대교)씨 등이 함께 출연, 무대를 빛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와 목원대에 출강중이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큐레이터와의 대화' 운영

국립광주박물관 월 1회

"박물관 큐레이터가 문화재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줘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12월5일까지 매달 첫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요일 야간 연장 개관과 연계한 행사인데, 박물관 큐레이터로부터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관람객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

오는 6일 열리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는 김희정 큐라비아학원 연구사가 '백자에 담긴 조선인의 마음'을 주제로 관람객을 맞는다. 매 행사마다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고, 무료이다. 문의 062-570-706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박물관 박해운씨 은관상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 박해운 학예연구사가 국립중앙박물관 후원단체인 한국박물관회의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은관상을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은 전년도 국립박물관 학예이 발표한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다.

박 해운연구사는 '소치 허련의 예술세계와 원대의 남종화'를 발표해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는 은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원대의 남종화가 소치 허련의 예술세계에 미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밖에 금관상(상금 500만원)은 국립중앙박물관 본조교학림 유혜선 박사과 역사부 박종환 학예연구관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드리 그리기·글쓰기대회

광주북구문화원 13일 개최

광주북구문화원(원장 이종철)은 오는 13일 제15회 무드리 그리기·글쓰기대회를 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갖는다.

이번 대회는 예술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작의욕을 북돋우면서 여가활동과 바람직한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드리 그리기(서양화·수채화)와 글쓰기부문(시·산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는 11일까지 우편(광주시 북구 중흥동 361-10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 4층 사무실)이나 홈페이지 http://gjbukgu.kecf.or.kr, 이메일(moodri@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527-770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양화가 김희석씨 부산 초대전

13일까지 한국아트미술관

반복되는 선을 이용해 인간의 얼굴이나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서양화가 김희석씨가 오는 13일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 한국아트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인간과 과학, 그리고 사회를 디테일하며'를 주제로 점과 선만

으로 인간의 삶과 전통을 표현한 'detail' 연작을 선보인다. 굵은 붓질로 표현한 선들로 여백을 그린 뒤 작은 선으로 이뤄진 그릇을 곳곳에 배치해 공간감을 살린 작품들이다.

그는 조선대 미술대학원 재학생이던 지난 1996년 프랑스로 유학, 마르세유 국립 조형예술대학교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detail'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주)국민법률경매				
지역/소재지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지역/소재지/면적(㎡)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지역/소재지/면적(㎡)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지역/소재지/면적(㎡)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지역/소재지/면적(㎡)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지역/소재지/면적(㎡)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남구 서구		

• 서구청청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진급부족시 최저금액리 대출입선·명도(이사)